

# 전북경제 부문별로 희비 교차

### 서비스 생산·소비판매·고용 증가... 건설·수출입·도내인구이동 감소

18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2/4분기 전북지역 서비스 생산 소비판매 고용 물가는 증가한 반면에 광공업생산 건설 수출 수입 도내인구이동은 감소했다.

감소한 분야부터 살펴보면 광공업 생산은 식료품(5.4%), 전자부품 컴퓨터(11.8%), 1차 금속(1.3%)는 증가했다

하지만 자동차 및 트레일러(-13.7%), 금속가공제품(-27.4%), 등은 감소했다

건설 수주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1% 감소했다.

공사 종류별로는 토목이 -58.6% 감소했고 발주자별로는 공공이 -74.5%가 줄어들었다.

무역수출도 부진했다.

상반기 전북지역 수출액은 총 14억

달러로 자동차(-36.5%), 화학제품(-41.6%), 기계장비(-20.1%), 선박(-98.7%) 등의 부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30.0% 감소했다.

전북지역 인구는 총 934명이 순유출했다

연령대 별로는 10~30대, 70세 이상 연령층에서 인구가 순유출됐고 10세 미만, 40~60대 연령층은 순유입됐다.

20대(-1,616명), 30대(-1,799명), 10대(-1,455명)순으로 유출됐고 50대(356명), 40대(304명), 10세미만(218명), 60대(1,469명) 순으로 유입됐다.

지역별로는 전주시(-1,249명), 익산시(-613명), 군산시(-167명), 임실군(-138명) 순으로 유출됐다. 반면에 부안군(685명), 고창군(565명) 순으로 순유입이 많았다

순유입이 많은 이유는 귀농인 때문으로 파악된다.

증가 분야는 슈퍼마켓 편의점(3.6%), 승용차연료소매점(6.6%), 전문소매점(1.3%) 등 소비·판매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가 올랐다.

또 고용·경제활동 인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2/4분기 전북지역 취업자수는 92만 6,000명으로 전기, 운수, 통신, 금융(13.4%),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2.3%), 농업, 임업 및 어업(3.9%), 도소매, 음식숙박업(3.2%)가 증가했다.

소비자 물가로는 식료품 비주류음료, 음식 및 숙박 등 가격이 상승하면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0.5% 상승했다

/신광영기자



이들 세 기관은 광주·전북지역의 에너지변환저장용 소재부품기업 발굴에 힘쓴다

## 에너지변환저장 소재부품 산업 업무협약

### 전북테크노파크 - 광주테크노파크 - 한국ESS산업진흥회

(재)전북테크노파크는 지난 17일 에너지변환저장용 소재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광주테크노파크 및 한국ESS산업진흥회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세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광주·전북지역의 에너지변환저장용 소재부품기업 발굴·육성에 긴밀히 협력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공동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전북테크노파크 관계자는 "향후 기업지원을 위한 국내·외 산업정보 자료수집 및 신규 프로젝트 발굴, 해외시장 개척 컨설팅 등을 통해 지속적인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ESS산업진흥회는 ESS산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정보제공, 신규 프로젝트 발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재)전북테크노파크와 (재)광주테크노파크는 지역 내 ESS 산업 육성을 위한 광주·전북에너지변환저장용 소재부품기업 사업화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공동 수행하고 있다.

/신광영기자

## 도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열려

### 23일 오후2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2층에서

도내 신생기업 인력난과 청년 인재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 오는 23일 오후 2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2층에서 마련된다.

이번 행사에는 공근터더 등 22개의 도내 신생 벤처기업이 참여해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면접을 실시하는 등 40여명의 청년인재를 채용한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청년희망재단과 함께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신규채용 할 경우 인원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 기업들의 신규인력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도내 신생 유망기업이 유능한 청년인재와 함께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통해 청년구직난 해소를 위해 힘을 계속"이라고 전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일자리종합센터(www.1577-0365.or.kr) 홈페이지 또는 전화(063-280-4775)로 문의하면 된다.

/신광영기자

## “열악한 기업환경 개선 등 전북 경제활성화 요청”

### 전주상공회의소 정운천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정책간담회

전주상공회의소는 18일 정운천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전북도에 5개 지역 당협위원장, 허남주 전라북도의원 등 새누리당 관계자와 기업인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기업 환경 조성 관련, 새누리당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KTX 전라선은 편도운행횟수가

11회로 다른 노선인 호남선 경부선 KTX에 비해 매우 적은 상황으로 여당인 새누리당 차원의 조속한 해결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현재 2만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 중인 새만금 신항만에 대해서도 10만톤급 이상으로 확대 건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한국은행 화폐수급업무와 관련해서는 유독 전북만이 홀대를 받고 있다며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

급 업무가 재개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일부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경제를 고사시키는 정책이기때문에 오히려 수도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은 "집체제 있는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며 "전북이 호남권내에서도 대접받을 수 있도록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

/신광영기자



도내 14개 시군이 참여한 이번 이마트 특별 판매전은 전국에서 열린다

## 전국 이마트에서 '전북농산물 특별 판매전'

### 판로확대 위한 상생마케팅

전북도와 전북농협(본부장 강태호)은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전국 40~70개 이마트 점포에서 '전북 우수 농산물 특별판매전'을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전북도와 농협 이마트는 전북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상생마케팅을 지난 3월부터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사는 도내 14개 시군이 참여해 포도와 배, 복숭아;

복분자, 아로니아, 오디, 블루베리, 고구마, 양파 등 원예 농산물 및 한우, 양곡까지 총 15개 품목이 전국 이마트 점포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강태호 본부장은 "전형적인 소량 다품목 구조인 전북 농산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수도·제주권을 넘어 전국 무대로 나아가 우수성을 인정받아 판로를 확대하여 판매농업 구현 및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 중도금 대출규제 영향 크지 않아

7월1일부터 시행된 중도금대출 보증 요건 강화(중도금 대출규제)가 분양시장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동산인포가 금융결제원의 지난 달 분양물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침체라고 할 만한 큰 폭의 지표하락이나 위축은 없었다.

지난달에는 전국에서 총 52개 단지, 2만4853가구가 분양(일반분양가구 기준)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5개 단지, 1만5533가구 줄어든 것이지만 2010년 이후 매년 7월 물량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7월 한 달간 1순위 청약자는 총 34만 5288명,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3.89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청약자는 33만807명 감소했으며 청약률(16.73대 1)도 낮아졌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추이를 볼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1순위 마감율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올 7월 분양된 주택형 총 240개 중 1순위에 마감된 주택형은 150개, 마감률은 62.5%였다. 작년 7월 마감률은 63.4%였다.

전통적으로 7월 분양시장은 6월보다 1순위 마감이 적다. 지난 7년간 7월이 6월보다 1순위 마감 주택형수가 증가했던 해는 2014년과 2015년 두 번 뿐이다. 2014년은 지방선거와 월드컵, 2015년은 메르스 영향으로 6월 분양시장이 주춤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올해 6월도 총선이 있었으나 지난해부터 이어진 분양시장의 호조세가 꺾이지 않았다"며 "중도금 대출규제는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 1인보증 한도 수도권 6억원 제한 등 적용대상 주택이 제한적이라 신규 분양 청약에는 앞으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7월 이후 분양차지들의 전매가 가능해지는 내년 분양권 전매시장은 거래가 주춤하고 분양권 프리미엄도 소폭 조정되는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CJ, 협력업체 결제금

### '1조원 조기 지급' 나서

CJ그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1조원의 협력업체 결제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전 통 시장 상품권 200억원치를 구매해 직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의 내수 촉진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이다.

CJ그룹은 18일 내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현금 흐름을 돕기 위해 납품 결제 대금을 추석 전에 일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CJ제일제당을 비롯해 11개 주요 계열사와 협력하는 중소기업 2만3000여 곳이 혜택을 받게 됐다.

/뉴시스



#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